



“유권자 앞으로” 2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4·13 총선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새누리당(왼쪽)·정의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이 적힌 팸플릿을 들고 공약실천을 다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공천자들 본격 표발같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93명...내일부터 후보자 등록

새누리 “광주에 예산 폭탄”...정의당, 광주 5대공약 제시

4·13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의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공천자들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22일 광주 미래발전 청사진을 담은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표발같이 나섰다.

◇광주·전남, 평균 5.16대 1 경쟁률 예상 =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최고 93명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보여 평균 5.16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광주는 8개 선거구에 42~43명 가량이 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이며,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50명이 등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 등록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이뤄진다.

목포 선거구에 8명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8대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광양·구례·곡성 선거구가 7명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광주에서는 동남갑과 서구를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를 포함해 각 6명의 후보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 공천자들은 선관위에 제출할 후보자 등록 서류 준비 및 정책 공약을 손질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할 유세차량 및 유세 장비 점검은 물론, 선거전략을 짜느라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광주발전’ 선언 = 새누리당 정운(광산갑)·양병현(서구갑)·이인호(북구을)·문충식(동남을)·한경노(동남갑)·김연욱(서구을) 후보는 2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발전 선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자동차 100만대 사업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확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 조성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개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지역구인 순천의 올해 예산이 9119억원으로 여수를 누르고 전남 1위를 차지했다”며 “당선되면 광주에 예산폭탄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도 공약 승부 나서 = 정의당 문정은(광산을)·나경재(광산갑)·강은미(서구을)·장화동(서구갑) 등 광주 총선 후보 4명도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라도 각 당은 정책·공약 제시로 참다운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보들은 정책 선거를 위해 6가지 대표 공약, 5대 광주 공약도 제시했다. 광주 발전 공약으로는 ▲노동친화적인 자동차 100만대 도시 조성 ▲기초과학 인재양성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지역문화예술인 창작·주거·생계 지원 ▲비정규직 없는 광주 등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비례후보에 전남출신 조훈현·허정무 포함

당선권에 1명뿐...호남소의 지적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송희경(52) 전 KT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단장을, 2번에는 비무장지대(DMZ) 수색 중부상당한 이종명(56) 전 육군대령을 각각 배정했다. 또 목포 출신인 ‘바둑황제’ 조훈현(63)씨를 당선 안정권인 14번,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진도 출신 허정무(61)씨를 32번에 각각 공천했다. 이들은 바둑과 축구계를 대표해서 비례 후보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광주시장 측에 따르면 호남 출신 인사들이 후보들이 단 두 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어 비례 후보 공

전에서 호남 출신 배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 공천 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규)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성 27명, 남성 18명 등 45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45명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정남은 10명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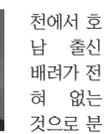
여성 묶인 비례대표 1번은 송희경 전 단장, 2번은 이종명 전 육군대령이 배정됐다. 임이자(52)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장

과 문진국(67)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도 3~4번을 받아 비례 전면에 배치됐다. 이어 6번에는 최연혜(60)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7번 김규환(59) 현 국가품질명장이 차지했다. 청년 몫에는 신보라(33) 현 청년이여미래 대표가 8번에 배정됐다. 김성태(61) 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과 전희경(40)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김종석(60)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42.8%의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25명(54명 선출)까지 등원했다. 하지만 이번엔 의석이 47석으로 줄어 20번 정도를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훈현



허정무

4·13 총선 현장

권은희 “시립도서관 위치 접근성 검토를”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 을) 의원은 22일 광주시립도서관 건립 추진계획과 관련, 접근성·효율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유치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현재 각 구별로 시립도서관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면서 “동구·남구·북구는 시립도서관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지만 광산구와 서구는 시립도서관이 전무하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히 “전체적인 구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여론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 전현직의원 22명 “박주선 지지”



광주시 동구의회 전현직 시·구의원 등 22명이 22일 국민의당 박주선(동남 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박 의원은 광주의 미래먹거리인 아시아문화전환 개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등 구도심인 동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큰 일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를 쓸 사람’이라고 극찬했던 박 의원이야말로 동구와 남구의 발전을 이끌 최적의 책임자’라며 박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용빈 “중학생 이하 입원치료비 정부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 갑 후보는 22일 “중학생 이하 780만명에 대한 입원치료비 국가책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간보험사에 납입하는 연간 어린이 보험료의 10%인 5152억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명의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며 “부모들이 병원비 걱정만이라도 덜면 저출산 위기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저출산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려고 독촉하기 전에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주민간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



국민의당 김경진 광주 북구 갑 후보는 22일 “지방선거 후보자와 주민간 상시 소통·평가하는 열린 시스템을 구축, 지역 정치혁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지역민과 출마 입지자가 지방선거 3~4년 전부터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민들이 후보자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광주시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는 정책·공약·경력 등을 소개하고 주민과 당원이 평가한 내용을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 반영하는 방안을 당규로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향자, 오늘 서구를 선거사무소 개소



더민주 양향자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4시 서구 금호동 보성빌딩 1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더민주 이용섭 총선 정책공약단장을 비롯,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광주의 인물교체가 호남정치의 시대정신”이라며 “일지리의 정치, 삶의 정치, 혁신의 정치를 이뤄낼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경환 “광산업 기반 융합 신산업 육성을”



국민의당 최경환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22일 광주 광산업의 제2도약을 위해 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신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가전, 광산업 중에서 가전분야 침체에 이어 광산업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광주시와 유관기관, 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해 전문가 TF팀을 구성, 광산업 기업들이 제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 광주 동남갑 출마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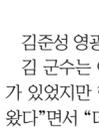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최진 광주 동남갑 후보는 22일 “호남사람들,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을 만드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최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20여 년간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연구, 저술, TV방송 등 활동을 하면서 최고의 대통령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세레나, 광주 북갑 출마 선언



민중연합당 장세레나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가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전문가로서 거꾸로 가는 여성정책을 제대로 구현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의 특권과 독점 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99% 민중의 희망을 만들 것”이라며 “기성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정치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대대·위탁정치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이종명 기자 cki@kwangju.co.kr

김준성 영광군수 더민주 복당



김준성 영광군수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김 군수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무소속 군수로서의 한계가 있었지만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더민주 입당 결정은 군민의 통합과 영광발전이란 대의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깊은 고민과 성찰 끝에 이른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더민주와 함께하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지자들과 함께 이날 더민주에 복당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전남도당위원장 겸 영광·함평·담양·장성 총선 후보는 김 군수의 복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었다. /영광=이종명기자 jylee@kwangju.co.kr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

모 집

자격 관리·운영규정 제7장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인정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교부

- 등 급
 - 주거환경개선사 (단일급)
 - 통맥풍수지리사 (1급, 2급, 3급)
- 응시자격
 - 본학회 4학기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 응시가능 (년2학기 : 1학기당 15주 30시간)
- 풍수지리학 강의
 - 개 강 : 상반기 : 3월 첫주 월요일, 하반기 : 9월 첫주 월요일
 - 시 간 : 매주 월요일 19:00 부터 (2시간)
 - 과 목(내용) : 자격종별로 별도 커리큘럼 참조
-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80-27번지 3층 (북구청 앞, 튼튼정형외과 병원 옆)
- 문 의 : ☎ 062-511-2488, 010-3615-2488
- 홈페이지 : http://tmfs.kr 또는 “통맥풍수” 를 치세요. e-mail : insans@daum.net

■ 이사장 윤갑원 (尹甲源) 프로필

- * 光州出生(1937年 丁丑生)
- *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修了
- * 前 羅州公共圖書館長(書記官) 역임
- * 前 韓國公認仲介士協會 風水地理學班 專任講師
- * 前 社團法人 韓國人間開發研究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경희대, 東서올대, 충북대학교, 부동산학과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 前 서울덕성여자대, 서울교육대, 대구교대, 대구가톨릭대, 충북대, 全南大, 木浦大, 順天大, 麗水大學校 平生教育院 風水地理學 專任講師
- 風水地理學專擔講師
- * 現 서울, 대구, 청주, 원주, 부산, 광주·순원 매주 定期的인 現場教育 實施
- ◆ 著 書
 - 1. 道說通脈地理(宮中秘傳風水) 總整理版(改正增補 1~6 版)
 - 2. 半坪의 眞理(통맥풍수지리학 입문서)(改正增補 1~5 版)
- ◆ “선조합동묘(先祖合同墓) 장법(葬法), 천개(天蓋)용 ‘봉판(棚板)’



이사장 윤갑원



학회장 김웅국

제5대 이사

- 이 사 장 윤 갑 원
- 상임이사 김 웅 국
- 이 사 김 중 수
- 이 사 임 태 중
- 이 사 황 정 연
- 이 사 이 중 근
- 이 사 정 병 선
- 이 사 양 동 주
- 이 사 정 태 일
- 이 사 이 미 경
- 감 사 박 석 규
- 감 사 김 영 희
- 사무국장 윤 인 성
- 총 무 조 복